

마음까지 물들이는 '봉숭아꽃잔치' 성료

임실, 지역주민·내방객 500여명 체험부스·먹거리 등 즐거운 시간 만끽

임실군에서는 '제5회 봉숭아 꽃잔치'가 지난 11일 관촌면 전원교회 일원에서 개최했다.

임실 YMCA(이사장 최선태)가 주최하고 전원교회가 주관한 '제5회 봉숭아꽃잔치'는 지역주민 및 내방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봉숭아꽃잔치'는 친환경적인 봉숭아꽃 이미지를 활용해 지역 홍보는 물론 주민과 관광객들이 옛 추억과 향수를 달래며 서로가 하나 되는 농촌마을을 만들어가는 생태문화축제가이다.

축제를 위해 임실전원교회(담임목사 최형) 교인들은 지난 봄부터 마을과 교회 주변에 3,000포기의 봉숭아꽃을 심어 꽃밭과 꽃길 조성해왔다.

이번 축제에 '엠티앙상블'의 현악기 공연과 국악신동으로 알려진 국악소녀 양진영양의 국악가요, 임실문화원 어르신들의 어르신댄스와 민요,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져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봉숭아꽃 물들이기, 압화부채만들기 등 5가지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잔치국수, 수육, 수박화채, 전통떡 등 다양한 먹거리들을 준비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임실 전원교회 최형 목사는 "오늘의 축제로 고된 농사일에 지친 농촌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임실군에서는 '제5회 봉숭아 꽃잔치'가 지난 11일 관촌면 전원교회 일원에서 개최했다.

축제가 됐다"며 "나아가 임실을 홍보할 수 있는 마을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임실의 농촌문

화와 향수를 문화와 관광으로 콘텐츠화해 지역민의 고유한 마을 축제를 개발하고 이를 연계시키는 관광상품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풍산면 청년농부 구용씨 첫 벼 수확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순창 풍산면에서는 첫 벼베기가 진행돼 농민들의 땀방울이 결실을 맺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풍산면 월산마을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벼베기 주인공은 월산마을에 거주하는 청년농부 구용(30)씨다.

구씨는 풍산면 반월리 35번지의 10필 2.6ha에 윤광 및 조평 벼를 4월 중순에 모내기해 이번에 수확했다.

급변 수확량은 20여 톤으로 전량 순창농협에 시중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지난해에 비해 10여일 빨리 수확했다.

첫 벼 베기를 한 구용씨는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폭염 및 가뭄이 심해서 농사짓기가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수확을 하고 보니까 보람차고 기쁘다"고 수확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소방서, 주택화재 초기 진화 가정에 표창장 전달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한 박상민(22)씨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2대를 전달했다.

지난 13일 부안소방서는 이번 더블보상 수혜자 박씨는 지난해 27일 부안군 진서면의 한 주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주택 뒤편 에어컨 실외기에서 짙은 연기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신고와 동시에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했다.

부안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 중이다.

부안소방서 김영삼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며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 교월동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 공연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우근)의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계속되는 인기로 힘입어 최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제572회 지평선아카데미 식전 행사 공연을 펼쳤다.



이날 30여명의 노래교실 회원들은 시원한 바다 같은 파란색 의상을 입고 수강기간 동안 배웠던 노래 중 선정된 '밤을 한 번 살까', '내 생의 봄날' 등을 신나는 율동과 함께 한여름 무더위 잊게 할 시원한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의 높은 참여와 뜨거운 관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즐거운 소통의 공간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무주경찰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 직장교육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3일 오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소속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믿음직한 경찰,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8월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윤중섭 서장의 무주서 현안업무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교양사항과 주요추진업무 발표순으로 실시됐고, 특히 생활안전과에서는 '민원총기입·출고'에 따른 안전관리 지시, '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교통 사망사고 예방활동 강화, 수사과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군민 대상 홍보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종교차별 금지교육'과 체포술 등 무도훈련이 진행됐으며, 근무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14일 2일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중섭 서장은 "일방적인 경찰행정이 아닌, 군민과 소통하며 필요에 의한 경찰활동이 필요하고, 군민의 안전과 직결돼있는 지역 축제에 대한 안전강화와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주무 기능에서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무주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 기능별 피해자보호관 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 청문감사관(과장 조후영)은 13일 여성, 수사, 경비교통, 지구대·파출소 등 각 기능별 피해자보호관 및 피해자 접촉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남원경찰에 따르면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에 따라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이 추가되며, 피해자 보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본연의 책무로 규정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방청, 경찰서 각 기능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예방 총괄 △사후지원을 위한 피해자상담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편 최홍범 서장은 "피해자보호는 경찰활동 전반에서 구현돼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각 기능 지휘관, 현장 경찰관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 스스로 피해자보호관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